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6월(제60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온천현 오이타의 질 좋은 상품을 돈뚝내주자!

## 오이타 공식 온라인스토어 소개 오이타현



180ml

‘코로나19 때문에 밖에 나가기가 어려워요’ ‘외국에 사는데 오이타가 그리워요’ 하는 분들께 희소식! 오이타 공식 온라인스토어가 일본 대형 오픈 마켓 사이트 ‘라쿠텐 이치바(楽天市場)’에 입점했습니다. 지난 6월 1일부터는 선착순으로 최대 30% 할인 쿠폰을 발급했으며 해외 배송도 가능한 질 좋은 오이타의 상품을 지금 바로 온라인으로 만나보세요!



(좌 온라인스토어 / 우 이벤트 페이지)

※ 해외 배송의 경우 별도의 배송비가 부과됩니다. (배송비 무료 상품도 동일) 자세한 사항은 온라인스토어 ‘회사 개요(会社概要) > 국제배송 항목(国際配送の項目)’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어서 응원하자!’ 오이타 먹거리 랜덤박스 판매  
(※냉장·냉동식품 해외 배송 불가)

현대 미술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구니사키

## 구니사키 컬처 투어리즘 구니사키시

오이타현 북동부에 위치한 구니사키시(国東市)에서는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해 예술을 접목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구니사키 예술제(国東芸術祭)’에서 3개의 작품을 제작한 데 이어, 지난해부터는 오이타현과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현대 미술 작품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예술 작품을 통해 구니사키를 알게 된 후에도,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접하며 구니사키의 매력에 더욱더 빠져들 수 있도록 하는 ‘컬처 투어리즘(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관광 여행)’을 실현하여 새로운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작품명 : 돌맹이를 가지고 산을 오르다 (기온야마산)

### 작가 소개

시마부쿠 미치히로(島袋 道浩)  
1969년 효고현 고베시(神戸市) 출생, 오키나와현 나하시(那覇市) 거주. 시적이지만 가끔 유머러스한 그는 현대인과 현대 사회를 계몽하고자 하는 작품을 확립시키며 세계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다수의 국제전에 참가하였으며 지난 2020년에는 구니사키정 쓰나이(綱井)지역의 기온야마(祇園山)산, 구니사키정 구노우라(来浦) 해수욕장, 구니사키정 다케다즈(竹田津) 지역의 마노세(馬の瀬) 암초에 퍼블릭 아트(공공예술)을 제작하였다.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6월(제60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철이 없었죠, 엄마만 꽃을 좋아한다고 생각했던 게.

## 구주 꽃공원 방문기 다케타시 竹田市

나는 꽃에 큰 관심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길을 걷다 꽃이 보이면 ‘예쁘네’하고 사진은 찍지만 일부러 꽃을 보기 위해 수목원에 찾아가거나 어딘가로 가본 적은 없다. 그러나 우리 엄마는 꽃 사진을 예쁘게 찍어 카카오톡 프로필로 설정하는 것을 좋아한다. 비단 우리 엄마뿐만 아니라 이 기사를 읽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친구의 어머니님도 대부분 그럴 것이다. 그러다 문득 궁금해졌다. 우리네 어머니들은 왜 이렇게들 꽃을 좋아하시는 걸까?

그런 의문을 가지던 중 오이타와 구마모토 경계에 있는 다케타시(竹田市) 구주 고원(久住高原)에 유명한 꽃공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찾아보니 ‘구주 꽃공원(くじゅう花公園)’이라 불리는 그곳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한국인에게 알려져 있던 관광지 중 하나였다. 특히 꽃을 좋아하시는 어머니를 모시고 방문하는 효도 여행 코스이자 꽃을 좋아하는 많은 분들이 방문하는 코스라는데.. 그래. 도대체 왜 그렇게 다들 꽃을 좋아하는지, 직접 가서 살펴보기로 했다.

해발 800m의 구주 고원에 위치한 구주 꽃공원은 22만 평의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1993년에 개원하여 2003년에는 연간 60만 명의 관람객 수를 달성한 이곳은 ‘자연과의 만남, 관람객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점이 특징이다. ‘자연과의 만남’을 중시하는 꽃공원답게 공원 내에는 계절 별로 피는 수많은 꽃

이 심어져 있음은 물론, 배경으로는 일본 100대 명산 중 하나인 구주산(久住山)과 반대편에는 구마모토의 아소산(阿蘇 五岳)이 펼쳐지는 등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이다. 매년 봄~가을 간 운영하며 12월부터 2월 말까지는 휴원한다.



봄(4~5월)에는 팬지, 튜립, 리빙스톤 데이지, 네모 필라, 꽃양귀비(개양귀비) 등이 피고 여름(6~8월)에는 흰 백합(카사블랑카), 라벤더, 맨드라미, 해바라기가, 가을(9~10월)에는 샬비어, 코스모스, 마리골드 등 다양한 꽃이 핀다. 원 내에는 한해살이 꽃(1년생 꽃)과 여러해살이 꽃(다년생 꽃)이 골고루 있는데, 한해살이 꽃의 경우 꽃이 지고 난 후 개화 시기에 맞추어 한 달에 걸쳐 모든 구간에 계절별 꽃을 새로이 심는다고 한다. 또한 여러해살이 풀과 꽃나무를 중심으로 꾸며진 널찍한 가든 구역에서는 왕나비도 볼 수 있다.

호주 교류원과 함께 방문한 취재 날은 이른 장마가 막 시작된 무렵이라 밤새도록 내렸던 비가 막 그친 참이었다. 땅은 아직 젖어있었고 산 위에 위치한 꽃공원은 안개가 자욱해서 햇볕을 받아야 꽃봉오리가 활짝 피는 봄의 계절꽃 리빙스톤 데이지를 보지 못해 조금은 아쉽기도 했다. 꽃공원은 ‘관람 순서(順路)’라고 적힌 표지판을 따라 걸어가다 보면 크게 한 바퀴를 돌며 전체를 둘러볼 수 있게 되어있다. 입구를 지나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아무 방향으로 가도 무방하지만 오른쪽으로 먼저 돌아보는 것을 추천한다. 꽃들을 먼저 둘러본 후에 카페와 기념품샵을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어서 마무리가 잘 되는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6월(제60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느낌이랄까? 그리고 라벤더 아이스크림과 차를 파는 카페와 양식, 뷔페, 야키소바를 파는 다양한 레스토랑도 마련되어 있어 꽃공원을 거닐다 피곤할 때면 여유롭게 쉬어갈 수 있었다. 또한, 향수, 액세서리 등을 판매하는 잡화점과 꽃리스 만들기 등 체험이 가능한 공간도 있기에 꽃을 단순히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즐길 수 있다는 점도 좋았다.



이름 모를 많은 꽃밭을 한참 지나던 중 호주 교류원이 혹시 한국에서는 전쟁으로 전사한 이들에게 주는 꽃이 있냐고 물었다. 한국에서는 국화를 바친다고 답하자 그는 호주에서는 빨간색 포피를 바친다고 이야기해 주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호주와 뉴질랜드 연합군 안작(ANZAC)이 참전한 터키 전투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주변에 빨간색 포피가 피어있었다는 이야기에서 유래하여 전사한 이들에게 바치게 되었다고 한다. 전쟁을 잊지 말자는 의미가 담긴 포피가 가득 핀 꽃밭을 걸으며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지. 이런 호주 교류원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포피는 아주 많이, 그리고 활짝 피어있었다. 문득 빨강, 하양, 노랑, 주황 등 알록달록한 색의 동글동글한 포피를 보고 있자니 귀엽다는 생각이 들어 ‘앞으로 내 최애 꽃은 포피야!’라고 생각하며 포피 엽서까지 사 왔는데, 기사를 작성하며 포피의 뜻이 ‘꽃양귀비’임을 알고는 기절초풍하고 정이 똑 떨어졌다(웃음). 물론, 절대 마약 양귀비가 아닌 관상용 양귀비라 엄연히 다르지만 ‘양귀비’라는 이름이 주는 임팩트는 무시할 수 없었고 덕분에 ‘포피’ 꽃은 아주 확실히 알게 되었다.

둘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약 한 시간 반에 걸쳐 꽃공원을 둘러보고 전망의 언덕(みはらしの丘)이 보이는 쉼터에서 각자 준비해온 도시락을 먹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몇몇 가게는 문을 닫았고 손님도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가족 단위의 관람객을 종종 볼 수 있었다. 맑은 날이 아니라 아쉬웠으나 안개가 자욱한 꽃밭을 거닐어 보는 것 또한 특별한 경험이 되었다.

꽃이라고는 SNS를 통해 본 드라이플라워 꽃다발과 어버이날에 드리는 카네이션, 장미, 해바라기 등의 아주 대중적인 꽃밖에 모르는 데다가, 모든 꽃이 계속 피고 지는 것을 반복한다고 생각했을 정도로 꽃에 대해 무지했던 나였다. 그러나 이번에 기사를 작성하며 꽃에 대해 처음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게 되었고, 알아볼수록 꽃을 키워내기 위해 많은 정성을 쏟아야 하는 것을 알게 되며 대단하다 싶었다.

나 같이 꽃에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이 많은 텐데, 추측하건데 그 이유는 꽃이 다 비슷하게 생겼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음에 꽃공원을 방문하게 된다면 꽃을 잘 아는 지인과 함께 방문해서 꽃에 관해서라면 무엇이든 좋으니 이야기를 들어볼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욕심내지 말고 ‘딱 한 가지’ 꽃 이름만 외워오자. 구주 꽃공원은 조용하고 넓고 아름다운 곳이라 돌아다니다 보면 ‘와, 예쁘다’하며 꽃사진을 잔뜩 찍게 되겠지만 정작 꽃의 이름을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내가 그랬다). 모처럼 멀리 갔으니 얻어오는 것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단 한 가지라도 내가 아는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6월(제60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꽃이 생기면 언젠가 그 꽃을 다시 만났을 때, 반가운 마음과 함께 다른 꽃들에 대한 새로운 관심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얼마 전에 좋은 내용의 글을 읽어 여러분께도 공유하고자 한다.

🌸 저는 요즘 부쩍 식물에 관심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핸드폰에는 식물을 예쁘게 찍은 사진이나 식물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한가득이에요.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은 이런 저를 보고 50대 감성이라고 놀리네요. 솔직히 인정하긴 싫지만, 나이 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 성숙해지고 있다는 게 맞을까요? 어릴 땐 바쁜 삶이 좋았는데, 이제는 주변을 살펴볼 여유가 생겼고 거대한 꿈에서 행복을 찾기보다 소소한 행복으로 삶을 채우는 방법을 알아가고 있는 거니까요. 내 일상에 식물을 초대한다는 것은, 어쩌면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아갈 줄 아는 멋진 어른이 되어 간다는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열심히 마음으로, 눈으로, 사진으로 식물을 담습니다. (출처: 인스타그램 @yourstory\_zip)

엄마들이 꽃을 좋아하는 이유, 아마도 이게 아닐까. 만약 이 글을 읽고 꼬덕꼬덕 한 분이 계신다면, 바쁘더라도 출퇴근길에 꽃이 피었는지 한 번만 둘러보는 아주 작은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그 관심을 가지고 언젠가 구주 꽃공원을 방문하여 꽃의 이름 한 가지를 외워가시길 바란다.



## 구주 꽃공원 (くじゅう花公園, 구주 하나코엔)

- 주소 : 竹田市久住町大字久住4050 (〒878-0201)
- 운영시간 : 08:30~17:30(입장마감 17:00)
- 운영기간 : 동계 휴원기간(12~2월) 외 연중무휴
- 이용요금 : 어른(고등학생 이상) 1,300엔,  
어린이(만 5세 이상) 500엔
- 문의전화 : 0974-76-1422(일본어 대응)
- 개화정보 : <http://www.hanakoen.com/flowering/>

기사작성 : 교류원 노지영(pu-no314@pref.iota.jp)



꽃양귀비(포피)



금어초



네모필라



청사르비아



# WHAT'S UP, OITA!

왓츠업, 오이타!  
2021년 6월(제60호)



에디터 : 노지영 (pu-no314@pref.oita.jp)  
오이타현 기획진흥부 국제정책과 국제교류원

## 노지 in 오이타

5화

어릴 적부터 비위가 극도로 약했던 나는



못먹는 음식이 매우매우 많다.  
(예: 해물, 날것, 향이 강한 음식 등)



그리고 음식의 정체를 알고나면  
맛이 있든없든 절대 못 먹게되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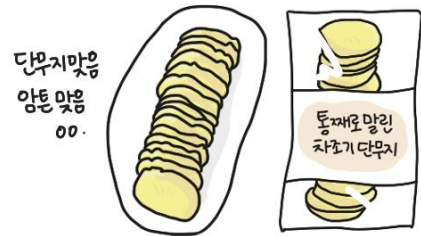
한국에서는 이것 '초딩입맛'이라 부른다.  
(모든 초딩이 그런건 아니지만...)



이런 나이기에 처음부터 일식이  
입에 맞지 않을것을 각오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일본에 사는데 먹어보자며  
틈틈히 일식에 도전했으나



번번히 실패하고 말았다는 슬픈이야기...



||  
|| 좋아하는  
|| 일식도 많아요!!  
|| (예: 교자,  
|| 오야코동...)